

할머니의 낡은 팔찌

‘사각사각’

숨 막힐 듯 조용한 교실 안, 시험을 치르는 학생들 사이에선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고 그동안의 노력을 증명하려는 듯 연필 소리만이 울려 퍼졌다.

‘톡톡’

바쁘게 정답을 구하는 연필 소리 속에서 내 앞의 학생이 다급하다는 듯이 자신의 책상 왼쪽과 오른쪽 모서리를 번갈아 가면서 두드린다. 바로 뒷자리에 앉아있던 나는 그 소리를 듣고 눈을 질끈 감았다. 등과 목 뒤에서 식은땀이 흘렀다.

우리 집은 부유한 편이 아니었다. 아버지는 식당 일을 하셨고, 할머니는 건물을 청소하는 일을 하셨다. 청소부인 할머니의 왼쪽 손목에는 항상 낡은 팔찌가 자리하고 있었고, 그 팔찌는 벗겨진 도금만큼이나 빛바랜 색을 띠고 있었다.

“할머니는 왜 그걸 계속 차고 있어? 많이 낡았잖아.”

“아이고, 내 똥강아지. 이걸 할머니가 아주 아끼는 팔찌란다. 빛은 바랬어도 끼고 있으면 힘이 나, 그렇고말고.”

돌아오는 대답은 내가 이해 못 할 말뿐이었다. 어떤 사연이 있는 것일까 궁금한 나는 아버지께 여쭙보기로 했다.

“아빠, 할머니 팔찌 말이야. 녹슬고 낡았는데 왜 계속 차고 계셔?”

식당 문을 열기 위해 앞쪽 뜰을 빗자루로 스스속 비질하던 아버지가 고개를 들며 팔찌에 얽힌 사연을 말씀해주셨다.

예전에 건물을 청소하던 할머니는 분리수거 도중 쓰레기통에서 비싸 보이는 시계 하나를 발견했다고 한다. 반짝거리는 시계 테두리와 함께 안쪽에 섬세하게 세공된 장식, 빛나는 보석도 드문드문 박혀있는, 누가 봐도 갖고 싶은 고급 시계였다. 할머니는 그 시계를 보며 생각했다.

‘이 시계를 가져다 팔면 돈이 꽤 되겠구나.’

하지만 그와 동시에 다른 생각이 할머니의 머릿속에 떠올랐다.

‘이런 값비싼 시계를 누군가 일부러 버렸을 리가 없어. 실수로 쓰레기통 안에 있는 게 아닐까? 만약 그렇다면 내가 주웠다고 해서 함부로 가져다 파는 게

옳은 일일까?’

한참을 고민하던 할머니는 그 건물 1층에 있던 금은방 사장님에게 그 시계를 보여주었다. 쓰레기통 안에는 종종 금은방에서 나온 포장지와 가격표가 있었기 때문에 할머니는 혹시나 하며 금은방으로 향했던 것이다. 또한, 그런 값비싼 시계를 취급할만한 곳이 건물 안에는 금은방밖에 없었다.

할머니가 가지고 온 시계를 본 사장님은 깜짝 놀랐다고 한다. 직원의 실수로 잃어버린 줄 알았던 시계를 들고 남루한 차림의 노인 청소부가 나타났으니 말이다. 자초지종을 듣고 난 금은방 사장님은 연신 감사를 표하며 할머니에게 비싸진 않지만 작은 선물을 드렸다. 바로 그 선물이 할머니가 일을 하실 때나 쉬실 때 항상 손에 차고 계시던 팔찌였다.

어려운 집안 형편 속에서 갑자기 나타난 쓰레기통 속 비싸 보이는 시계는 할머니에게 마치 힘들게 사는 우리를 향해 내려준 행운처럼 보였을 것이다. 당연히 가져도 되는 것이라고, 이미 쓰레기통 속에 버려져 있는데 내가 가지는 게 뭐가 잘못된 거냐고. 누구보다 우리 가족들을 사랑했던 할머니에게는 뿌리치기 어려운 유혹이었을 것이다. 하지만 할머니는 그런 유혹에 저항해 다시 한 번 생각했다. 누가 봐도 새것처럼 보이는 시계를 버렸을 리가 없다고, 나에게 행운처럼 보이는 것이 잃어버린 누군가에겐 불행일 것이라고, 주인을 찾아줄 사람은 자신밖에 없다고.

할머니는 그 이후로 항상 그 팔찌를 소중하게 여기셨다. 할머니에게 있어서 그 팔찌란 단순히 비싼 시계를 주인에게 찾아주고 받은 대가가 아니었다. 그릇된 유혹과 자신의 올곧은 양심을 결코 벌인 팽팽한 한판 승부였으며, 그 팔찌는 곤궁한 상황 속에서도 할머니의 양심이 이겼다는 승리의 증표였다. 시간이 지나 팔찌의 빛이 바래갈수록 할머니의 삶은 정신적으로 더욱 풍요로워졌으리라.

그 사연을 들은 나는 할머니가 정말 자랑스러웠다. 손목에 차시던 팔찌는 마치 할머니 스스로 소중한 양심을 지켰다고 당당하게 말하는 듯했다.

‘톡톡’

바쁘게 정답을 구하는 연필 소리 속에서 내 앞의 학생이 다급하다는 듯이 자신의 책상 왼쪽과 오른쪽 모서리를 번갈아 가면서 두드린다. 바로 뒷자리에 앉

아있는 나는 그 소리를 듣고 눈을 질끈 감았다. 등과 목 뒤에서 식은땀이 흘렀다.

그 왼쪽과 오른쪽을 두드리는 소리는 나에게 정답을 알려달라는 소리였다. 우리 학교에서 힘깨나 쓰는 부유한 집안의 자제였던 그 아이는 정답을 알려주면 내가 꿈에 그리던 휴대용 게임기를 주겠다고 말했다. 학업 성적이 곧잘 나왔지만 소심하고 조용한 성격인 탓에, 그 아이는 나라면 거절하지 못하고 거래에 응할 것이라 생각했던 모양이다.

나는 고민했다. 시험 도중 휴대폰으로 시간을 확인할 수 없기에 손목에 찬 아날로그시계로 시간을 확인했을 때 할머니의 팔찌가 떠올랐다. 난 눈을 질끈 감았다가 다시 떴다. 식은땀은 여전히 내 등 뒤를 적시고 있었고 나는 그 부정의 ‘톡톡’ 소리를 무시하려 애썼다. 예전에 나의 할머니가 그랬던 것처럼.

시험이라는 것이 이렇게 긴 시간 동안 치러지는 것이었던가? 문제의 ‘톡톡’ 소리는 내 뜻을 알겠다는 듯이 조용히 사그라졌다. 다시 눈앞의 문제에 집중하려 연필을 쥐었다. 두근거림은 점차 사라지기 시작했고 내 시야에 수학 문제들이 뚜렷하게 보이기 시작했다. 시간은 얼마 남지 않았다. 난 최선을 다해서 남은 시간 동안 시험 문제를 풀어가기 시작했다.

시험이 끝난 후 그 아이가 나에게 다가왔다. 왜 알려주지 않았냐고 따졌다. 게임기는 꿈도 꾸지 말라며 배신자라고 욕을 퍼부었다. 나는 ‘선생님이 우릴 계속 주시하고 계셨어. 너랑 나랑 성적은 비슷하잖아.’ 라는 말로 적당히 둘러대며 그 자리를 서둘러 빠져나왔다.

‘내가 잘한 일이었을까?’

집에 가는 길, 같은 물음을 몇 번이나 계속해서 되뇌었다. 말수가 적고 조용한 나였기에 더욱 겁이 났다. 그 아이가 나를 ‘배신자’ 취급하며 나쁜 소문을 퍼뜨리면 어떡할까. 다른 아이들이 그 소문을 듣고 나를 싫어하게 되면 어떡할까. 그 누구도 몰랐을 일인데, 정말 잘한 선택이었을까?

양심을 지켰다는 당당함과 떳떳함이 가득 찼던 마음속에 두려움이 슬그머니 파리를 틀었다. 중학교 때는 친구 관계가 무엇보다 중요했다. 학교에서 하루 종일 같이 시간을 보내는 친구들과의 사이가 틀어지는 것은 그 당시 나에게 있어

정말 피하고 싶은 일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부정행위를 거절했다. 게임이라는 큰 유혹이 있었음에도. 내 양심은 승리했지만 복잡한 감정들이 내 속에 뒤엉켜 나를 정신없게 했다.

그 아이가 내게 보복할 거라는 두려움은 얼마 지나지 않아 사라졌다. 그 아이는 나 말고도 다른 학생들에게 나에게 제안했던 것과 같은 내용의 ‘거래’를 하려 했다. 그와 관련된 소문이 퍼지자 친구들로부터 외면을 당했으며 결국 고등학교로 올라간 이후에는 소식을 알 수 없게 되었다. 나는 나만이 특별한 선택을 한 것이 아니라는 점이 기뻐다. 나뿐만 아니라 다른 친구들도 나와 같이 유혹을 뿌리치고 자신의 양심을 팔지 않는 올바른 선택을 했던 것이다. 가슴이 벅차올랐다.

그 사건 이후 변한 것이 두 가지 있다.

말수가 적고 내성적인 성격이었는데 친구들과 축구나 농구도 하고 제법 잘 어울리게 되었다. 내 양심의 승리가 나에게 당당함과 자신감을 선물로 주었고 그것이 변화된 성격으로 드러난 것이었다.

다른 하나는 학업 성취도가 상승한 것이다. 수학을 유달리 좋아했던 나였지만 사건이 있고 난 이후 수학 점수가 크게 올랐다. 물론 사건이 발생했던 날의 수학시험은 점수가 곤두박질치긴 했지만 크게 중요하지 않았다. 매 수학 시간마다 내가 했던 올바른 결정이 생각나 날 들뜨게 했고, 그런 벅차오름이 내가 수학을 좀 더 열정적으로 공부하도록 만들었기 때문이다. 고등학교에 진학한 이후 나는 수학과 과학을 깊게 배우고 싶어 이과를 선택했고 성실히 학업을 이어나갔다. 덕분에 원하는 대학에 진학하였고 현재는 대학원에서 연구자로서의 길을 걷고 있다.

양심이란 것은 평범한 일상에서 항상 우리들의 관심을 필요로 한다. 그렇기 때문에 지위고하,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모든 상황에 속에서 우리의 양심은 시험에 들 수 있다. 때로는 너무나 달콤하여 자칫 자신의 모습을 잃고 그릇된 선택을 하기도 한다.

하지만 나는 그런 유혹에 빠져들 때마다 나의 왼쪽 손목을 바라보곤 한다. 그리고 상상한다. 내 손목에 채워진 할머니의 팔찌를. 그리고 중학교 시절, 시험시

간에 차고 있던 손목시계를. 할머니의 가르침이 아직도 내 안에 있음을 느끼며 나는 앞으로도 나의 소중한 양심을 내 손으로 지킬 것이다. 할머니가 ‘물려주신’ 팔찌 덕에 내 손은 부정의 유혹을 뿌리칠 수 있는 강한 손이 되었으니까.